



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S&P는 그리스 부채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A+에서 A로 강등한다고 밝힘.

- S&P는 2011~14년 이탈리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 전망을 1.3%에서 0.7%로 하향 조정하고, 성장둔화로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.
-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탈리아 국채 CDS 프리미엄은 25bp 상승한 513bp를 기록하였고, 독일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4bp 상승한 94bp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.
- 3개월 만기 통화-유로리보 스프레드¹⁾ 또한 전일(92bp)대비 상승한 99bp를 기록함.
-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유로 가치가 하락함.
 - 9월 1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환율은 유로 당 1.3685달러에서 1.3613달러로 떨어져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하락함.

■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, 유로지역 3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음.

-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해 국채발행 비용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, 결국 EU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됨.
- 그러나 이탈리아가 GDP 대비 119%에 달하는 국가채무 비율 중 56% 이상을 자국이 보유하고 있고,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도 충분할 만큼 저축지표가 좋기 때문에 구제금융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함.
- 다만, 이탈리아 위기가 단시간 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.

1) 유럽은행들이 유로화를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는 비용을 나타냄.

- 이탈리아 의회는 재정적자를 현재 GDP의 4.5%에서 2014년까지 0.2%로 낮추기 위한 480억 유로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야는 세부 정책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임.
- 유로존 회원국의 소극적인 대응도 위기를 확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EU 지도자들이 이탈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.

■ 국가 신용등급 강등 공포가 유로존을 뒤흔들면서 이탈리아 신용등급의 한 단계 하락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 등이 다음 차례라는 관측이 제기됨.

- 블룸버그는 스페인이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현재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보다 두 단계 낮은 Aa2, 피치는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AA+를 부여하고 있음.
 - 스페인은 GDP대비 정부부채가 60%를 넘고,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390bp까지 치솟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함.
 - 스페인 은행의 부실채권비율²⁾은 7월 말 현재 6.94%(1,247억 유로)로 1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여 스페인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.
-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성장세 둔화였는데, 이는 주변부 국가(PIIGS)를 비롯한 프랑스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함.
- 특히, 프랑스와 독일은 주변부 국가 국채의 45%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,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인한 은행의 손실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부추길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9/21, Wall Street Journal 9/21, Bloomberg 9/21)

2) 스페인 중앙은행 자료.